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4월 29일 (금)
...(음력 3월 29일)...
Пятница
29 апреля 2022г.
№ 16 (1198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5월 1일은 봄과 노동의 날이다. 명절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개최된다. 이날 12시부터 레닌광장에서 공연이 열리고, 레닌광장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놀이터가 마련되며 식품, 기념품 판매 행사장도 펼쳐질 예정이다.

가까린 휴식공원과 <로지나>문화회관 앞 광장에서는 명절행사 프로그램들이 14시부터 시작되고 <고르니 워즈두흐>스키장 중간역에서는 12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군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친다. 또한 12시부터 시민들을 위해 <포베다>박물관과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측은 스키장 행사장에서 활동교실들을 준비한다. 그 외 다양한 행사 도시 여러 마을과 동네에서 개최된다.

▲ 5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쳐진 시민들의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봄과 노동의 날'을 맞아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 명절과 함께 다가오는 따뜻한 날들을 맞이하고, 친지들과 교류하는 기쁨 속에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일을 위해 힘을 충전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할린주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합니다.

근로에 힘쓰는 우리 각자는 집과 학교와 병원을 건설하는 일, 석탄과 수산물과 원유를 채취하는 일, 채소를 가꾸는 일, 학생들을 교육하고, 노인세대 돌보는 일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할 때만 설정한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고, 최근에 맞닥뜨린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지역 주민들이 직업에서 자아를 잘 실현시키며, 근로에 적정 임금을 받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얻도록 도우며, 주택과 사회적 시설을 건설하고 제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도로와 주택가, 공공 장소를 정비하고, 이곳을 수리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만사 형통함과 강건함과 번영, 좋은 봄기운을 기원합니다! 봄과 노동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베레즈냐키 주민들과 만남

베레즈냐키 마을을 방문한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주민들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먼저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을 한 사회활동가와 공무원에게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주지사 기념훈장을 수여했다.

나드사진 시장은 완료된 사업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의 우선적 사업은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목적으로 시는 계획된 벽지 마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주민과의 대화가 진행된 가운데 주민들은 마을의 가스화 사업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특히 주민들은 지역이 점차적으로 성장할 것을 고려해 현재 100석의 유치원은 아이들 수용에 부족해질 거라고 지적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는 이 지역에 유치원을 건설하는 것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 3대 중점 사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에도 주어지는 질문과 안건은 지방 전문관이 접수해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답변을 주도록 했다.

이후 주지사와 시장은 정비되고 있는 젤료냐야 거리를 시찰했다. 이 정비의 일환으로 보행자 길, 조명,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계약상 정비 사업 완료는 2022년 8월 1일이다.

단신

사할린 주민들 우크라이나에 22톤 이상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집

사할린의 3차 인도적 지원 물품들을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보냈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 기업가들, 의회 의원들이 식료품과 위생용품 22.5톤을 수집한 가운데 생선 통조림, 밀가루, 이스트, 아동용 기저귀, 위생용품도 포함돼 있다. 인도적 지원 물품 수집은 '예진나야 러시아(러시아 통합)'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된 사할린의 인도적 지원으로 식료품을 비롯한 의류, 생활용품, 아동 장난감, 문구류를 포함한 물품 32톤 이상이 2차례 우크라이나로 배송됐다.

사할린주, 5월 명절 기간 보안정책 강화

4월 26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사할린주 반테러위원회 회의에서 핵심 안건의 하나는 보안정책이었다. 회의에 정부 각 기관 및 법무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5월 기념일을 앞두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훈련 및 방역 행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무사고를 위해 보안 최상급 조치로 진행하고, 위험을 감안해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도록 한다. 모든 정부기관들과 사무처 간에 완벽한 상호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이에 명절 기간 사회안전 및 질서 확보를 위해 경찰, 주 방위대, 개별 보안기관 대표자들,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관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보안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사할린 방문자 가운데 테러활동을 목적으로 한 지역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과 교통편 및 사할린주 교통 제반시설 대테러 방지 확보에 따른 문제를 논의했다.

기부축제 '#우리 함께' 개최

4월 30일 13시부터 15시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우리 함께' 기부축제가 열린다. '마야크(등대)' 아트-레지던스 앞에는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기부금, 성인 및 아동 의류를 비롯해 장난감, 수공예품을 가지고 온다. 주최 측은 이 물품들을 트로이츠히예의 '자비의 집'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 축제 방문객들은 유기견들을 위해 먹이,약품, 그릇, 봉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 쓰는 이불 호칭을 접수한다.

'한반도 마법의 동화'

5월 1일 12시, 15시 사할린주 미술관이 '한반도 마법의 동화' 견학에 초대한다.

전시된 현대 한민족 수공예 예술 장인들의 작품들에는 민화, 신화, 전설, 전통과 풍습들이 아름답고도 섬세하게 반영돼 있다.

'한반도 현대미술' 상설 전시관을 둘러보며 관람객들은 실크섬유 문양, 도자기, 회화, 서예 등에서 다채로운 한민족 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국립대, 아태 지역협력 연구로 제2회 국제학술회 개최

지난 22일(금)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에서 제2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지역 협력: 공동 문제 해결 및 연구 통합'이란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회가 개최되었다.

학술회를 개최한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일 엘비라 학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 국제학술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교육 및 문화 소통'과 '한국학의 현안' 두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이번 대회가 연구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번 대회에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의 사범학교,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아벨라이 한 명칭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교(알마티), 사할린국립대 등의 교수들이 발표했다. 일부 발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및 문화 소통'섹션에는 고등경제대학의 제니스 페레제린 교수가 '아시아 사업문화: 교육플랫폼 해결에 대한 대학생 문화 간 기획'이란 주제로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발표 시간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극동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크다고 발표자가 전했다.

사할린국립대 동양학(일본어학)의 올가 사스키나는 '온라인 세션을 통해 일본에서 러시아어 대중화' 주제로 발표하여 사할린국립대 학생들과 치바대학교 학생들의 공동 온라인 주제 만남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사할린국립대 최 인나 한국어교수의 '대한민국 학교 교육 과정: 특징과 우월성'이란 발표도 큰 관심을 이끌었다.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하이 옥자 수석 연구전문가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소장된 하회탈 컬렉션'이란 주제로 발표해 참가자들의 많은 질문에 답변했다.

이고리 톨스토콜라코브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사할린 국립대 동양학 교수 겸)의 발표가 기대됐다. 그는 이날 대한민국 새 정부 (새 대통령)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또는 기대하지 않아야 할지에 대해 발언했는데 이번 대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었다고 본다. 새 대통령 선거 배경,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 윤석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 등을 잘 분석하여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 강연을 아주 주의깊게 들었다. 톨스토콜라코브 교수의 발표는 '한국학의 현안'섹션의 첫 발표였다. 사할린 국립대 인나 코르네예바 외국어 및 국가

학과 과장 겸 한국어 교수의 '대한민국의 언어정책으로 보는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발전'이란 주제가 잘 정리되어 역시 재미있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은 '경험에서 배우다: 사할린 2년, 한국어/문화교육'주제로 원장으로서의 사할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한 넬리 박사는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발전 전망'(알마티, 온라인 발표),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지아의 류드밀라 셀로하예와 교사의 '기본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교육환경의 동기부여 공간', 극동연방대학교 사범학교 옥사나 트로피멘코 교수의 '현대 한국어의 <있다>란 실존동사', 사할린국립대 조 카리나 한국어교수의 '현대 한국어의 신조어', 모스크바 <동양학> 교육프로그램 지도자 올리야나 스트리자코 박사의 '동양 언어학의 실수 유형: 인지 분석',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임 엘비라 학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생긴 한국어 언어회 혁신'이란 발표들도 역시 유익했다고 참가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소방방재기술 박람회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러시아에서 매년 4월 30일은 소방관들의 직업 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올해는 소방기관 설립일로부터 373년이 되는 해이다.

소방의 날을 맞아 4월 30일(토),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광장(승리 종합기념박물관 부근)에서 소방방재기술 및 소방 장비, 기기 전시회가 열린다.

이날 어린 관람객들을 위해 러시아 사할린주 비상대책부 본부 직원들은 어린이들이 소방 체험을 하도록 소방복을 입어 보고, 소방호스의 노즐을 연결하여 화재 목표점을 겨냥해 물줄기를 쏘아보며,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등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사할린주 소방부대들 간에 소방 전개에 따른 불 만한 경기가 진행된다. 소방부대의 과제는 단시간에 일련의 훈련과제를 수행하고, 소방호스를 펼쳐 연결하여 목표물을 겨냥해 물줄기를 쏘는 것이다.

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выставку пожарной техники

Ежегодно 30 апрел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огнеборцы отмечают св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В этом году пожарной охране исполнится 373 года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В честь Дня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30 апреля в 11:0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озл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будет проводится выставка пожарной и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пожар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вооружения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юных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сотрудники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или пожарные испытания, в которых ребята смогут надеть боевую одежду пожарного, поработать с ручным пожарным стволом, упражняться в меткости по сбитию мишени водяной струей, прокатиться на квадроцикле, применить воздушно-пенный огнетушитель и другие.

Параллельно среди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зрелищ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боевому развертыванию. Задача пожарного расчета будет заключаться в том, чтобы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выполнить ряд упражнений, проложить рукавные линии и поразить мишени напором воды.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 합창단 축제 진행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지역 단계 <러시아의 아이들이 노래한다> 학생 합창축제 총결산이 4월 22일(금) 시상식

과 함께 화려한 축제의 갈라 콘서트로 마무리되었다. 이 행사는 3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지역 단계 <러시아의 아이들이 노래한다>학생 합창 축제에 사할린주 각 지방에서 21개 합창단 46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정통 합창, 민요, 가무 합창곡 부문에서 경쟁을 치렀다. 참가자 연령은 7세-18세로 합창단들의 경연 프로그램은 민요, 성가 아카펠라, 국내외 작곡가들의 곡, 고전 및 현대 곡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갈라 콘서트에서는 지난 축제에 가장 빛났던 곡들도 발표되었다.

마지막 무대에는 초청된 사할린 예술전문학교의 '유노스치(절음)' 전문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고, 끝으로 지휘자 게오르기 루만체프의 지휘 아래 몇몇 학생 합창단들이 합동으로 '솔네 츠니 크룩(햇빛 찬란한 세상)'이란 평화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школьных хоров

Яркий и праздничный гала-концерт с церемонией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явшийся 22 апреля, стал итог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фестиваля школьных хоров "Пюют дети России", посвященного 75-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на площадке ГДК "Род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школьных хоров "Пюют дети Рос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460 человек, 21 хоровой коллекти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и состязались в номинациях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и эстрадного хорового пения.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 от 7 до 18 лет. Каждый коллектив представил на конкурс программу из четырёх номеров: народная или духовная песня а capella, произведения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композиторов, классических и современных.

В ходе гала-концерт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иболее яркие номера прошедшего фестиваля. В завершении образец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оказал приглашённый хоровой коллектив "Юность"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Ну и самым финальным аккордом стала песня о мире "Солнечный круг" в совместном исполн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школьных хоро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ирижёра Георгия Румянцева.

올 연초부터 사할린 주민 20명 이상 약물음독 시도

2022년 초부터 사할린 주민 20명 이상이 약물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이들은 자살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했다고 주 소비자보호감독청이 밝힌 가운데 "올 1/4분기에 화학적 극약

음독이 36건으로 기록됐는데 이는 지난해 유사시기보다 11건 줄어든 수치다. 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성인 20명, 14세 이하가 13명, 10대 청소년이 3명이다."라고 전했다.

기록된 모든 약물 음독자 중에 대부분 의약품 이용이 총 22건이었고,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중 18명이 자살 시도로 이용했으며, 그외 약물 피해자들은 자녀들로서 부모나 조부모들에게 있는 약품들 속에서 우연히 찾아낸 것들을 복용한 데 있었다.

이에 소비자보호감독청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Больше двух десятков сахалинцев отравились медицинскими препаратами с начала года

Больше двух десятков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2022 года отравились медицинскими препаратами. Почти все они хотели свести счеты с жизнью.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е.

– Всего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года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36 случаев острых химических отравлений. Отметим, что это на 11 случаев меньше, чем в этот же период год назад. Среди тех, кто поступал в ле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были 20 взрослых, 13 детей до 14 лет и трое подростков, – рассказали в ведомстве.

При этом из числа всех зафиксированных отравлений, наи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ишлась на медикаменты – 22 случая.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18 человек хотели покончить жизнь самоубийством.

Остальные пострадавшие – дети, которые случайно залезли в аптечки своих мам, пап,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Поэтому в ведомстве попросили родителей уделять активное внима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их чад.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체육과목에서 우승

유즈노사할린스크 1호 김나지아 11학년생인 니키타 자폴스키가 전국 학생 체육과목올림피아드 결승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는 2년 연속 전국 학생 체육과목올림피아드에서 최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결승전이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옐친 우랄 연방대학에서 열린 가운데 체육과목 경시대회에 러시아 78개 행정자치지역에서 온 학생들 258명이 참가했다.

이론 시험과 더불어 학생들은 스포츠 각 종목, 체조, 사격, 육상 경기 경쟁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니키타는 78.3점으로 우수 점수를 받았다. 단지 우승을 위한 백 점 만점 중 몇 점이 부족했다. 시상식에서는 응용체육 부문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어 우승컵을 받았다. (8면에 계속)

권 블라디미르, '러시아 노동 용맹'훈장 받아



본지 4월 22일호 2면의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이란 기사의 주인공인 "오스토브"회사 수석 엔지니어 권 블라디미르가 기사가 게재된 날에 청년 부문에서 '러시아 노동 용맹'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훈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드미트리 하이브리에브 부시장이 수여했다.

새고려신문사는 이 높은 포상을 받은 권 블라디미르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모든 면에서 성공하시길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재외동포재단, 2021년도 '우수공시기관' 선정

348개 공공기관 중 35개 우수공시기관 선정, 외교부 산하기관 중 유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외교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공시내용에 대한 정확성, 적시성을 점검하고 있다.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은 3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3개 항목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점검 결과, 재외동포재단은 허위공시, 지연공시 등 불성실 공시 내역이 없는 무벌점을 기록, 우수공시기관 35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그동안 투명한 경영과 정보 공개에 노력해왔으며, 올해 새롭게 추가된 ESG 관련 사항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감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아동 씨름대회 개최

지난 23(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씨름협회(회장 준 알렉세이) 주최로 유·청소년 씨름대회가 개최되었다. 네웰스크, 아 니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블라디보 스토크에서 온 9-16세의 선수 95명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경기는 2011-2013년생, 2008-2010년생, 2005-2007년생 3그룹의 연령대에서 체급 별로 진행되었다.

이번 씨름대회에는 씨름을 배우는 선수 외에도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하는 어린 선수도 많았다. 참가자 일부는 이번 씨름대회가 첫 경험이기도 했다.

연령대 체급별 그룹에서 킬릴 구찌코브, 이완 마르코브, 스타니슬라브 폴리찌코, 알렉산드르 스웨츠, 드미트리 모스코베츠, 바티르 마미토프, 미하일 고코브, 알렉산드르 바라바노브, 알렉세이 웨레니킨, 루슬란 황, 알렉산드르 마르히닌이 이날 우승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수상자와 참가자에게 이날 사할린주 씨름협회가 준비한 메달과 기념품 등을 시상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유·청소년 씨름대회 목적은 선수들 간에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한 민족 씨름을 대중화하는 데 있다.

한편 2018년에 창립된 사할린주 씨름협회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해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경기를 개최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주씨름협회 제공)

사할린 주, 대전승 기념 77주년 준비

5월 9일 승리의 날을 맞아 사할린 전 지역에서 '불멸의 연대' 행진, 참전용사를 기리는 개별적 행진, 탐사 수색, 작문대회 등 기념행사가 열린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재로 4월 25일에 열린 '승리'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일을 앞두고 전통행사와 새로운 행사 도입이 논의됐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26명, 레닌그라드 봉쇄기 주민 18명, 나치 포로수용소 수감자 57명, 후방 참전 노동자 354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1부지사 세르게이 바이다코브는 "대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각 참전용사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최대한 세심하게 대해야 한다."며 "지역 지도자들이 이를 감안하여 참전자들 중 누구도 축하받는 일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리의 날을 맞아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는 매해 7만5천 루블리가 지급되며, 그외 참전자들에게는 5만 루블리가 지급된다.

참전용사들의 건강 상태도 세심히 관리되는 가운데 집으로 왕진을 위한 의료진이 구성되어 환자들을 위해 최소

한 달에 한 번 전문의를 동반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참전용사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미니 행진이 열리는데 이 행사는 팬데믹 기간에 생겨난 전통으로서 주민들과 참전자들 사이에 큰 지지를 얻었다.

이외에도 전쟁 기념비, 참전자 묘비, 방치된 참전용사들의 묘지 정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방 정부와 사회운동가들,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5월 9일 승리의 날 기념식은 헌화식으로 시작해 800명의 군인과 군관학교 생도들의 열병식, 군인을 기리는 행사, 가가린 공원의 시민을 위한 행사,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주민들을 기다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온라인상으로 진행됐던 불멸의 연대는 2년 만에 전국 도시 거리에서 행진하게 된다.

매해 섬들에서 조국수호 전몰장병 기념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장병 유품 수색자들을 대전장 터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애국 행사로 학교들마다 기념일 수업, 참전용사와 노동전선 참전자들과의 만남, 전시회, 작문대회, 탐구활동 등이 진행된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국숫집에서 / 박명숙

빼걱대는 목로주점 나무의자에 걸터앉아
잔치국수를 보채네, 잔치할 일 없는 나날
적절한 반생의 혀로 찌디찌게 보채네

허름한 한 세상도 간이 맞으면 흥겨웠던가
해 질 녘 국숫발이 명줄처럼 뜨거운데
모르는 우리들끼리, 그림자끼리 먹고 있네

"질문 하나. 식당에 들렀는데요. 메뉴라고는 잔치국수 그리고 김치찌개 백반이 전부인 식당인 거예요. 독자님들은 어떤 걸 점심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든든하게 배를 채울 요량이라면 김치찌개를 선택하시겠지요.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이길 만한 메뉴는 그리 많지 않을테니. '명동교자'의 '칼국수'라면 모를까, 잔치국수는 어쩐지 점심 거리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론 둘 다 시켜야죠. 저와 식사를 함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둘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이어트'의 뜻이 원래 '내일부터 할 일' 이런 뜻 아니었나요. 무식하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는 괴이한 철학적 행보를 어쩌면 저는 제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어쨌든. 저라면 김치찌개를 아무지게 싹싹 다 비우고, 입가심으로 국수 한 그릇 훌훌 마실 겁니다.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순간. 아, 내일 점심은 김치찌개에 국수를 곁들여서 먹어야지, 흠흠.

역시나 남들과는 다른 시인의 시선. 박명숙 시인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국숫집에서도 손님들의 그림자를 살핍니다. 잔치국수라 함은 결혼식 날 음식 아니었던가요? 많은 양을 비교적 빨리 준비할 수 있으니 잔칫날 요리의 상징입니다. 요즘이야 대부분 뷔페 요리를 준비합니다만 예전 어르신들만해도 결혼식 요리하면 '잔치국수'였습니다. 이제는 국숫집 어딜 가도 멸치육수에 고명 얹은 잔치국수를 먹기 쉬운 세상. 저렴한 값으로 잔치를 즐길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한 메뉴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만, 이렇듯 시인은 쓸쓸한 행간의 여운을 남깁니다. 일면 식도 없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뜨거운 국물을 훌훌 마시는 풍경이라니. 소중했던 누군가의 잔칫날을 각자 뒤늦게라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걸까요?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마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원이 없겠습니다. 귀가하는 내내 관객들의 머릿속은 결코 그 국숫집을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단정한 언어가 물고 온 행간의 힘이 일상의 등숙운동을 이렇듯 잠시 멈추게 합니다. 시인이 남긴 여운의 힘 덕분에 청기와집을 지었다 흥기와집을 부렸다 제 머릿속이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 어느새 해질녘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차세대 대표들과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전 세계 각지의 차세대 대표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동포사회 기여 방안 논의와 재단 사업 관련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재외동포 차세대 대표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21일(목) 09:00~10:00, 미주지역(미국, 캐나다, 브라질)의 재외동포 차세대단체장 및 역대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16:30-18:00, 이외 지역(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12명의 재외동포 차세대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 등 총 2회에 걸쳐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차세대 대표들은 소속된 단체 활동과 현지 차세대 네트워크 현황을 소개하며 그간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로 대면 교류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온라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일상이 회복되면 단체 활동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재단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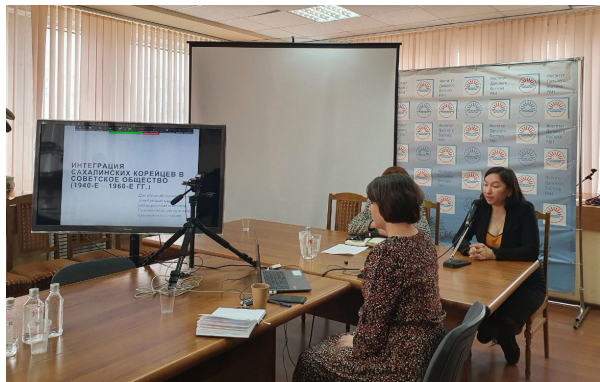
김성곤 이사장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는 차세대 동포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개개인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고, 현지 동포사회와 국제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차세대 인재육성 및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бсудили в Москве

24 – 25 марта 2022 г. в одном из ведущих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Центре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прошла XXVI конференция кореевед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ходила в здании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с участием известных дипломатов и ученых.

В конференции с докладам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а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как А.З. Жебин, В.Е. Петровский, К.В. Асмолов, О.В. Кирьянов, П.С. Лешаков, А.В. Воронцов, С.О. Курбанов, Г.Д. Толорая, Ж.Г. Сон, Е.Е. Ким и другие. Разнообразие тем охватывало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 от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и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до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оссии и СНГ.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Дин Юлия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Интегр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ветское общество (1940-е – 1960-е гг.)».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влиянии совет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ь диаспоры, создание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таких социальных институтов как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корейские культур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Ее доклад вызвал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просов по озвученной тем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ет издан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который ознакомит читателей с основными докладам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Наш кор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лучших в борьбе ссирым

Дет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прош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брало 95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Невельска, Ани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Турнир прошёл в трёх возрастных (2011-2013, 2008-2010, 2005-2007 годы рождения) и 11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Каждый поединок в ссирым длится всего минуту, но обычн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раньше — как только один из соперников коснётся рукой, спиной, либо любой другой частью тела, настила. Встреча спортсменов идёт до двух касаний.

Судьи в этом виде спорта не только следят за самим боем, но и за подготовкой к нему — проверяют правильность захвата за пояс обеими руками и принятие правильного упора перед началом поединка.

Многие из участников в этот день провели свои первые в жизни схватки. Один из них — Данил Панасенк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Сам я уже четыре года занимаюсь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ой, но решил попробовать другой вид спорта. В первой встрече я победил, хоть было немного непривычно и страшно, — рассказал 13-летний Данил.

Ещё один воспитанник 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 10-летний Константин Ковальчук. Спортсмен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 В первом поединке я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Мне повезло, что я знаю своего противника — мы вместе тренируемся в спортшколе. Главная сложность была в нашей разнице в весе — с ним я не смог провести бросок, поэтому пришлось делать упор на подножки, — поделился подробностями Константин.

Победителями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и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стали Кирилл Гутиков, Иван Марков, Станислав Политико, Александр Швец, Дмитрий Московец, Батыр Мамытов, Михаил Гоков, Александр Барабанов, Алексей Вереникин, Руслан Фан и Александр Мархинин,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поминая ветеран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СССР, СНГ, России

Ким Моис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В Москве 26 апреля 2022 г. в Дом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и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Лунное послание» о ветеран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СССР, СНГ и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 мероприятия —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совместно с Домом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ддержке медиагрупп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газета, сайт и ИА РУСКОР), сайта «Коре сарам», Пресс-клуба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ткрыл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ветник директора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ФНКА азербайджанцев России Мехрибан Садыгова, подчеркнувшая важную роль освещ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ветеранов, добившихся выдающихся достижений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наук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ой работы. На значимость таких тем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сс-клуба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жамиль Садыбеков, ученые Юрий Башин, Анатолий Харитонов и другие.

Целями и задачами были поиск материалов о зачинателях, ветеранах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СНГ и России, биографий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 политических, научных, воен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мастеров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порта.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шли историки, культуролог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активисты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сотрудники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смотрел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вид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ях: Хо Ун Пэ (Хо Дин), Мен Дон Ук, Ян Вон Сик, Ли Ген Дин, Цой Гу Кин, Тен Чу, Ким Зо Фун и другие.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в обсуждении темы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Вениамин Ким, Галина Пак, Альберт Ким, Мира Хо, Юлия Пискулова и другие.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шире пропагандировать историю жизни и судьбы таких деятелей, ветеранов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едущими были —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Моисей Ким и режиссёр, культуролог Вениамин Ким.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осенью 1937 года были поголовно выселены (депортированы)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цы

были вырваны из обычной десятилетиями налаженной жизни и быта в Приморье, проходившей более 70 лет с периода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предстояло всё начать заново на новом необычном месте. Время покажет, что эти тяжкие испытания они преодолели достойно, гармонично влившись в существовавший социально —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культурный социум в новом месте проживания, где их приняли в дружную семью народов СССР.

Особенно драматичной стала судьба тех 11 молодых, талантливых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прибыли в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 50-е годы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на учёбу из КНДР, но которые после XX съезда КПСС оказались невозвращенцами. Это именитые зачин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Союзе ССР Хо Ун Пэ (Хо Дин),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писатель, правозащитник, Мен Дон Ук, режиссёр, сценарист, актёр, Ян Вон Сик, поэт, редактор, правозащитник. Так же в этом ряду Ли Ген Дин, литератор, писатель Цой Гук Ин, кинорежиссёр, кинооператор, Хан Дин, завлит.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драматург, Тен Чу, композитор, преподаватель-профессор, Ким Зо Фун, переводчик и другие.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ые судьбы они оказались стойкими, выносливыми, преодолевшими трудные испытания жизнью, делом, бытом — остались верны своим принципам и своим родинам — Коре, СССР, СНГ, России.

Документально —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Лунное послание» создано по мотивам сборника стихов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газеты в Казахстане «Коре ильбо» Ян Вон Сика.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едущие корейские актеры 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Постановка была горячо воспринята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Алма-Аты и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в СМИ Казахстана.

Благородны устремле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активистов, считающих очень нужным поиск материалов о зачинателях, ветеранах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СНГ и России. Находить биографии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 политиках, учёных, поэтах и писателях, воен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мастерах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порта. Они готовы собирать 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сведения о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ских ветеранах, неординарных соплеменниках в назидающие потомкам.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объявлено о дальнейшем снижении каранти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25 апреля COVID-19 переведён с первого на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в четырехуровне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е классификаци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Инфицированным пациентам разрешено лечиться в любых клиниках и больницах, а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 обязаны немедленно сообщать властям о случаях заражения COVID-19. Снят запрет на употребление пищи в кинотеатрах, закрыт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ях, междугородных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ах КТХ и автобусах-экспрессах. Тем не менее, сохраняется запрет на приём пищи в город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25 апреля начался второй этап ревакцинации против COVID-19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0 лет. Четвёртую дозу вакцин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одившиеся в 1962 году и ранее,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третью дозу вакцины более чем 120 дней назад. Повторная ревакцинация особо рекомендована пожилым людям старше 80 лет.

На церемонию инаугу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пригласят 41 тыс. человек

Для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10 мая, решено пригласить 41 тыс.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комитете по подготовке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Изначально с учётом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рекомендаций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ригласить около 10 тыс. человек, однако планы были изменены после отмены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Мён Бак с супругой Ким Юн Ок, супруга бывшего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Но Му Хёна Квон Ян Сук и другие члены семей экс-президентов страны. Действующий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после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отправится в свою частную резиденцию. 25 апреля путём жеребьёвки будут отобраны участники церемонии среди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одавших заявку. В день инаугурации в 00 часов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ударов в колокол Посингак в столич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Чонно-гу. Утром Юн Сок Ёль посетит Национ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где почтит память павших патриотов, а затем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перед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В РК представлена «100-дневная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орьбы с COVID-19

27 апр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по приёму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Ан Чхоль Су обнародовал «100-дневную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оронавирусу, которая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работы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словам Ан Чхоль Су, данный пакет мер необходим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возможным изменениям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скольку эксперты ожидают очередной волны заражений этой осенью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ых штаммов.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включает 34 задачи по четырём направлениям –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реализации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а основе конкретных научных да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е устойчивой системы борьбы с инфекцион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обеспечение защиты людей из группы риска, обеспечение стабильных поставок вакцин и лечебных препаратов от COVID-19. Задачи разделены на три этапа,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в течение 30, 50 и 100 дней после начала работ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В первый месяц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тмены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возможной новой волне заражений. Будут приняты меры по укрепл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детей.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ускоренную систему лечения больных из группы риск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заражённый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препарат Paxlovid от компании Pfizer в день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я COVID-19.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планируется сформировать экспертный орган по вопросам борьбы с инфекционными угрозами. Поставлена цель по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чтобы он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а на основе конкретных научных данных.

В РК появится инфекционная больниц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иёму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предложила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передово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инфекционной больницы дл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повторным эпидемиям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2 апрел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иссии Хон Гён Х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больнице будут оборудованы изолированные палаты с отрицательным давлением более чем на 150 мест. Достигнуто общее по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здания такого объекта, имеющего ресурсы для клинических испытаний вакцин и препаратов, а также лучшие кадры, в целях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пандемиям в будущем. Был затронут также вопрос формирования фонда на случай появления новых вирусов и обострения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Хон Гён Хи заявил такж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рки работы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комиссий и комитетов, работающих при действующ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а также рассмотрения их актуальности.

(RKI)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осталось без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еул, 28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была исключена из списка стран, которых Украин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за поддержку в ее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защите от вторжения России, вызвав неоднозначную реакцию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ая страна публично предоставила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но отказалась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ддержку оружием.

В видео,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официальном аккаун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Украины в Twitter,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список из 31 страны, которых она объявила «партнерами» Украины, а командующий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Валерий Залужный поблагодарил их за «помощь и неизм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эти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В список вошли Австралия, Азербайджан, Албания, Бельгия, Болгария, Хорватия, Чеш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Канада, Дания, Германия, Греция, Эстония, Египет, Франция, Финляндия, Италия, Латвия, Литва, Люксембург, Нидерланды, Северная Македония, Норвегия, Польша, Португалия, Румыния, Словакия, Швеция, Испания, Турция и США.

В список вошли т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поставляли Украине летальное вооружение после вторжения России 24 февраля. Считается,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из списка за то, что они не оказывали Украине такого же уровня поддержки во время продолжающегося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Южная Корея до сих пор предоставила 1 миллиард вон (\$ 798 000) нелетальных военных и медицинских поставок Украине в ответ на призывы страны о поддержке для отражения вторжения России.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ям, Сеул планиру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нелетальную помощь на сумму 2 миллиарда вон в этом месяце.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ширен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в начале своего срока.

Но Южная Корея твердо отвергла неоднократные

просьбы Украины о поддержке летальным оружием, заявив, что страна имеет уник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ч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ддержки летальным оружием потенциально может повлиять на готов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Страна, как полагают, отклонила запросы о поддержке летальным оружием из-за своего уникального конфликт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которые, скорее всего, ограничили страну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только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Тем не менее,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подверглась широкой критике за ее половинчат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Украине,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принимала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ины Владимира Зеленского для виртуального обращения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в начале этого месяца. Зеленский выступил с телеобращением в практически пустом зал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скольку только 60 из 300 законодателей пришли послушать его выступление. Не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замечены выходящими из зала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Зеленский закончил свою речь, не было оваций, что отличалось от сцен в других миров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Профессор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ртем Лукин раскритиковал Южную Корею и ее политиков за неб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речи Зеленского и отказ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Украине.

«Для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южнокорейца доступ к морским деликатесам имеет абсолютный приоритет перед войной в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 написал Лукин в своем Твиттере 10 апрел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разделилась, узнав,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была исключена из списка 31 страны, а некоторые обвинили Украину в преуменьшении помощи Сеула за то, что она не поделилась летальным оружием. Но другие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могут понять исключение, поскольку добавление в список усложнило бы отнош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с Россией в будущем.

СМИ: На Украине погибли корейские наемники

МИД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ил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что среди воюющих на стороне Украины иностранных наемников убиты двое корейце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С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ссылаясь на свои источники.

Местный телеканал YTN, цитируя неназванного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МИД РК, отметил, чт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ведомство пока не располагает данными о том, сколько погибших и кто именно погиб. Согласно получ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огибших "более одного" и воевали они на стороне Украины где-то на юго-востоке или на юге.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властей РК,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 Украине находятся как минимум четыре гражданина РК, трое из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один из них (женщина)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беженцам. Среди троих воюющих

есть бывший капитан спецназа ВМС РК Ли Гын, который широко известен в интернете. Однако сам Ли сразу после сообщения о гибел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вязался с семьей, успокоив родных, что он жив. С двумя другими связи пока нет.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помнили,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ыезд на Украину для граждан РК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запрещен.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грозит крупный штраф или тюремное заключение.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ранее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отказался выполнить просьбу Владимира Зеленского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Киеву различного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Южная Корея согласилась продолжить поставк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и продукции, которая не включает летальные виды оруж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РК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д сохранением экосистемы морской отмели «кэтполь»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ложит усилия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экосистемы морской отмели страны «кэтполь», которая отличается высочайшим уровнем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Об этом он заявил 22 апреля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м послании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в экопарке Польгё в уезде Пос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посвящённом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водно-болотных угодий. Отметив, что в пределах «кэтполь»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тысячи видов морских организмов, президент заявил, что ежегодн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этполь» перерабатывают 490 тыс. тонн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По его словам, ценность морской отмели в качестве источника ресурсов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 устойчивости экологии достигает 18 трлн вон (14,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год. Он написал, что отмели Посон и Польгё являются объектами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торое было сохранено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В Березняках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главную улицу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о капремонту улицы Зелёной должны до 1 сентября.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д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й с мэром города Сергеем Надсадиным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село, входящее в соста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Надо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до начала учебного года. Во-первых – это безопасность детей, которые пойдут в школу, расположенную неподалеку. Во-вторых – с началом сентября резко возрастет автомобильный поток. Работайте, наверстывайте график, если требуется, –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подрядчик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тяженность улицы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1,3 километра. Капремонт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Строители полностью меняют сети газо- и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водопровода, ливневую канализацию.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оезжую часть и тротуар заасфальтируют,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дорожные знаки, а также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более 21 километра транспортных артерий.

В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вошли дороги, которыми каждый день пользуются тысячи водителей и пассажиров. В их числе – участок дороги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до поворота на карьер «Лиственничный», улица Авиацонная от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до улицы Ленина, проспект Победы от улицы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до улицы Западной, переулок Энергет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и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селе Новосибирское,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объез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шатся работы на долгожданном дл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частке по улице Украинской.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и приведению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Кострома в селе Костромское.

Нацпроект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19 года. За этот период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удалось привести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более 73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Сахалинцы удостоены высоких наград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вшаяся в День фла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а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и профессий. Всех их объединяет способность к самоотверженному труду в интересах общества и героическому поступку.

Пандем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стала самым серьезн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сего мира.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отечественные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е службы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эффективные меры по защите населения.

– В результате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ыли спасены жизнь и здоровье тысяч людей. Добиться этого удало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кам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служб, которые трудились день и ночь. Низкий вам поклон!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организацию работы п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ордена Пирогова удостоены: Армине Арутюнян, заведующая лабораторией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рина Бянкин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Ковтонок,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Управ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еловек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мак Ооржак, врач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Русских, заведующая лабораторией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Чал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Управ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еловек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фья Шагланова, врач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далью Луки Крымского награждены: Татьяна Багина, старший специалист отдела Управ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еловек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Канета, фельдшер-лаборант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лина Рябцева, фельдшер-лаборант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риятно,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оценило труд моих коллег по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Будем и дальше работать, есть новые вызовы, на которые надо эффективно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отвечать, – отметила Галина Ковтонок.

Среди награжденных есть и педагоги,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ли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Елена Бudyлев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трансформ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ена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бъявлена Наталье Песковой, директор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 в Указ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 увековечению памяти погибших при защите Отечества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ведет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поиску и захоронению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павших в 1945 году при освобожден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ртему Бандуре объявле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ред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лучивших награды в День флага, – двое школьников из Поронайска. Л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натолий Вдовенко и Михаил Коренев совершили героический поступок.

Во время шторма несколько детей девяти и десяти лет без присмотра взрослых купались в море. Двоих волны стали уносить прочь от берега. На помощь детям пришли отдыхавшие на берегу Анатолий Вдовенко и Михаил Коренев. Им удалось, рискуя жизнью, спасти одного из подростков.

– Страх не ощущали. Бояться некогда было, сразу бросились в море, – рассказал Анатолий Вдовенко.

За неравнодуш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людям, мужество, стойкость и героизм,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награждены диплом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нициативы «Горячее сердце».

7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бошли волонтер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Защита.Уважение»

Добровольцы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принимают заявки на подключение к газу и ремонт дворов, помогают с записью на медицинск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ешают много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изван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рограмма «Забота.Защита.Уважение» стартова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олонтеры составляли списки дворов и дорог, которым требуется ремонт. В этом год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ривлечь волонтеров и к реализации областных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 «Волонтеры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разу подключились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бота.Защита.Уважение». У нас уже был большой опыт помощи пожилым и одиноким людям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 так же точно ходили по адресам, приносили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лекарства, узнавали о проблемах, которые беспокоят жителей, помогали их решать. Поэтому опера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обходах участвуют как волонтеры, так и члены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Я сам постоянно объезжаю дворы и дороги, информирую жителей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об этапах газификации, навещаю пожилых людей.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з 7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бнаруженных дорожных дефектов почти половину зафиксировали волонтеры. В дальнейшем их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В этом году продолжаем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в этом и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Защита.Уважение», – рассказал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думы Александр Шарифуллин.

– Главные задачи добровольцев – услышать мн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актуа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людя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нять обращения в адрес мест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 Волонтеры информируют людей о льготных программах,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и знакомят с работой социальных сервисов.

В списке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просьб сахалинцев лидирует категория «ремонт дворов и дорог».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обращений составило более 20 тысяч. Почти 3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заинтересовал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по которому граждане старше 55 лет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культур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учреждения, а пенсионеры в возрасте от 70 лет бесплат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городск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Более 2 тысяч граждан попросили помочь оформить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Замыкает список пяти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услуг – заявки на газификацию и уголь. Добровольцы не только рассказывают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газифика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о и помогают передать заявки от домохозяйств на подключение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топливу, объясняют, как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убсидиями.

Обход волонтер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Защита.Уважение» начался в марте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есь апрель. Узнать их можно по фирменным жилетам с именными бейдж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ась подготовка к дачному сезону

Островные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и 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вырастят рассаду овощей,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дачников.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вест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ярмарки, гд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необходимую рассаду и инвентарь.

– В ма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чинают дачные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качественные семена картофеля, рассаду тепличных овощей и вырастить свежую, натуральную продукцию на своем огороде. В условиях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это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дет малая посевная кампания. Аграрии высевают в теплицах семена капусты – от ранних до поздних сортов. Всего в ходе малой посевной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м предстоит вырастить 11 миллионов штук всех видов капусты на площади в 270 гектаров. Также в хозяйствах вырастят рассаду перцев, томатов, огурцов, баклажанов и кабачков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основной посевной кампании аграрии планируют приступить в первой декаде мая.

– 21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Домом торговли», состоится традиционная областн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Весна – 2022». Там в широком ассортименте будет продукция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посадочный материал, саженцы, минеральные и органические удобрения, семенной 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й картофель лучших сортов,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Речкин.

В большой областной ярмарк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а также сахалинцы – владельцы личных подсобных хозяйств. Отметим, что с наступлением теплого сезона ярмарки для дачников и садоводов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 районах практически еженедельно.

Напомним, вопрос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охраняет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сред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п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овощами.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стных агропредприятий и фермеров составляют овощи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прежде всего, томаты и огурц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ласть обеспечивает ими себя на 65 процентов.

Скопившиеся на материке грузы для Сахалина вывезут быстрее

Это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вернувшийся на линию Ванино-Холмск паром «Сахалин-10». Об этом шла речь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аслушал доклады профильных зампредов и министров о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во всех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сферах – транспорте, торговл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энергетике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м хозяйстве.

– Процедуру о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ния судна перенесли, лицензия парома продлена до 1 июля. Продолжим на этом судне доставлять с материка на остров пропан. Кроме того, у нас остается и резервный вариант с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линией.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тоже постепенно входим в обычный график. В конце апреля и начале мая 6 вагонов с известью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адресно отработаем заявк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 комбикорму и картофелю,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щен ажиотажный спрос на товары.

– Ведем мониторинг запасов в опте, рознице и товаров в пути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Отслеживаем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наименований,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из которых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сахар, рис, гречка, мука. Ими регион обеспечен на срок до 105 дней. Отмеч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е снижение спроса на товары, в том числе на яйцо. Ажиотажа нет, цены остаются стабильными, –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Речкин.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и энергети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работают стабильно. Обеспечены необходимые запасы топлива. На стройках процесс идет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Об этом доложили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и Сергей Олонцев.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находится лекарственная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ак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регион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재단,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4월 22일(금)부터 6월 20일(월)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작품 접수

재외동포사회 한글문학 창작 장려 위해 상금과 수상자 확대, 수필부문 추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를 시행함에 따라, 4월 22(금)부터 6월 20(월)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시행된 문학 공모 사업이다.

- 2021년: 총 54개국 635명 참가, 1,321편 작품 응모

올해 문학상은 동포사회 요청으로 기존 체험수기를 일반산문(수필·체험수기)으로 확대하여, 성인 부문 「시·단편소

설·일반산문(수필·체험수기)」, 청소년 부문 「중고등·초등 글짓기」, 입양동포 부문 「입양수기」를 공모하며, 거주국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경우 5년)가 응모할 수 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심과 전통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수상자와 상금을 대폭 확대하였다.

- 전년 대비 성인과 입양동포 부문 총 상금 2천만 원 증가, 시·일반산문(수필·체험수기) 부문 수상자 확대
- 한글학교 특별상은 청소년 부문 수

상자와 본심 진출자를 많이 배출한 한글학교에 수여

김성곤 이사장은, "최근 재외동포의 애환을 담은 소설 '파친코'가 드라마화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문학상을 통해서도 동포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주목받고,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응모 접수는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정준하 선생님과 정형돈 선생님

선생(先生)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먼저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선생이 있다는 말은 사실 모두가 선생이라는 말도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통령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품위가 있어 보일 정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불리는 사회는 그래도 멋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정적입니다. 선생님 외에는 의사와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모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왠지 위압적인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말에서 선생은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일반적이라고나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나 확실한 직책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주로 남성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선생이라고 부르는 행위에서는 특별히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모두에게 배우려는 자세처럼 보여 좋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좋은 호칭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이 나이가 많은 연예인 선배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좋습니다.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 주는 분은 모두 선생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생님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인이 연예인을 부를 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나 고두심 선생님, 조용필 선생님이나 심수봉 선생님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 주고 가르쳐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예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배움 외에도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웃음을 준다는 점에서 내 표정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어리숙해 보여도, 때로 진상처럼 보여도 사실은 본인의 외로움을 참아가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예능인인 겁니다. 예능인, 코미디언 등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직업입니다.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에 무한도전의 열렬한 팬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이 사람들에게 도전 의식을 주고 올바르게 이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무한도전이 큰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무한도전은 무모한 도전에서 시작하여 오랜 시간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예능의 큰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능프로그램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웃길 수는 있지만 감동까지 주고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한도전이 대단했던 이유입니다.

저희 가족은 무한도전이 종영한 지 오래되었지만 늘 찾아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 크게 웃고 때로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수없이 본 프로그램인데도 그렇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대사도 거의 외웁니다. 특히 정준하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정형돈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한도전의 대사는 "6학년이 웃겨?"입니다. 저희 둘째아들이 좋아하는 대사는 "내가 봤어 정말 잘 탔어."입니다. 아마 무한도전 팬이라면 기억이 날 겁니다. 설정된 캐릭터이겠지만 부족해 보이는 모습에서 더 큰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위로를 주는 본인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고마운 겁니다. 본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선생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준하 선생님과 정형돈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힘내라고 응원을 합니다. 선생님을 향한 예쁜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힘내서 더 밝게 앞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정준하 선생님, 정형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글이 두 분께도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제24회 재외동포 문학상

2022. 4. 22(금) ~ 6. 20(월)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로 접수
(한국시간 기준)

문의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T +82-2-3415-0143
E culture@okf.or.kr

응모자격

성인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 / 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
청소년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 / 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초등 부문(만 7세 이상 ~ 만 13세 미만) 중·고등 부문(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입양동포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

공모 부문·주제

성인 •시 •단편소설 •일반산문 (체험수기·수필)	•시, 단편소설: 자유 •일반산문 수필: 자유 체험수기: 이민과 정착 과정 중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초등)	•한글 학습·한국문화 체험 경험담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경험담 •자랑스러운 세계시민(글로벌 코리아)인 나와 친구들 •기타 자유 주제
입양동포 •입양수기	•응모자(입양동포 또는 자녀) 본인의 경험담 •본인, 가족의 정체성 확립 여정 및 '뿌리' 탐색기 •기타 자유주제(가족상봉, 한국 방문 경험담 등)

※ 응모 시 공고문의 원고 분량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입양수기의 경우 미발표 한글 또는 영문 작품).

시상내역

성인 •시 •단편소설 •일반산문 (체험수기·수필)	대상(부문별 1명) 우수상(시·단편소설 2명, 체험수기·수필 각 1명) 佳作(시 5명, 단편소설 3명, 체험수기·수필 각 2명)	500만원, 상패 250만원, 상패 100만원, 상패
입양동포 •입양수기	대상(1명) 우수상(1명) 佳作(2명)	500만원, 상패 250만원, 상패 100만원, 상패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초등)	최우수상(부문별 1명) 우수상(부문별 2명) 장려상(부문별 3명)	100만원, 상패 50만원, 상패 30만원, 상패
한글학교	특별상(2개교)	200만원, 상패

접수방법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코리아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해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
(첨부파일은 응모지명, 응모분야, 작품명 순으로 기재)

※ 수상자는 추후 재외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결승전은 4월 30일까지 계속되며, 결승전에 참가하는 사할린 대표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토마리, 티몴스코예, 흄스크, 레이도워 마을의 학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할린의 고등학생들은 프랑스어, 영어, 화학, 컴퓨터 정보통신, 지리학, 문학, 역사, 물리, 생활안전, 러시아어, 생태학, 체육, 세계 예술문화, 수학, 사회상식, 생물, 법률, 기계기술 등 18개 과목에서 올림피아드를 치르고 있다.

전 러시아 학생 올림피아드는 러시아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참가 학생 수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대규모 행사로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지식을 탐구하는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결승전에서는 총 24개 과목에서 경쟁을 치른다. 이번 결승대회에 러시아의 학생 7천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결승대회 우승자와 수상자에게는 올림피아드 참가 과목에 따른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Южносахалинец стал призёр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Ученик 11 класса гимназии №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икита Запольский стал призёром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Отличный результат на ВСОШ по этому предмету он показывает вто-

рой год подряд.

Олимпиадное состязание проходило с 16 по 21 апреля на площадке Ураль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Ельцина. Участвовали 258 школьников из 78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мимо теоретического тура ребята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навыки в состязаниях по игров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гимнастике, стрельбе и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Никита показал отличный результат набрав 78,3 балла, ему не хватило буквально нескольких сотых балла до статуса победителя. Также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ему вручили кубок за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в приклад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родлится до 30 апреля. В составе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24 школьник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села Рейдово. Островны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участвуют в олимпиадах по 18 предметам: французскому,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ам, химии, информатике, географии, литературе, истории, физике, ОБЖ,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экологии,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МХК, математике,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биологии, праву, технологиям.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лимпиада – это самое масс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обучающихся,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о всём мире. Оно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и поддержать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стремящихся получить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выходят за рамки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Финал ВСОШ охватывает 24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едмета. Всего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7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беда или призерство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дает льготы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в любой вуз страны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рофилю олимпиады,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안산 고향마을의 김도영 씨 별세

김도영 씨가 2022년 4월 24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안산 고향마을에서 별세 하셨습니다.

김도영 씨는 사할린 한인 1세 영주귀국 문제 해결을 위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할린주한인노인회 회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일동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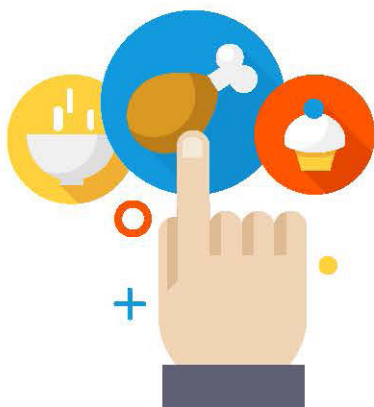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йт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